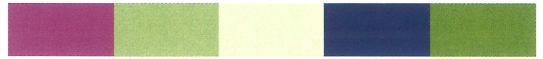




위대한 유산:

할머니, 우리의 딸들을 깨우다





위대한 유산:

할머니, 우리의 딸들을 깨우다

[위대한 유산 : 할머니, 우리의 딸들을 깨우다]

개관 | 2002. 12. 9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2층 여성사전시관

주최 | 여성부

기획 | 여성부

인쇄/제본 | 서울문화사




발행일 | 2002. 12. 19

발행처 | 여성부

본 저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여성부에 있습니다.

© 20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목차

	인사말	4
	여성사전시관 소개	5
	프롤로그	6
	1부 : 여성, 깨어나다	8
	2부 : 여성, 일어서다	10
	3부 : 여성, 일하다	12
	4부 : 여성, 달라지다	14
	5부 : 여성, 표현하다	16
	에필로그	18
	여성사전시관 소장유물	20
	전시관 프로그램	22
	관람안내	23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여성사전시관은 여성부가 국내 처음으로 여성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설립한 전시관입니다. 역사의 발전에 기여해 온 여성들의 역할과 삶을 되돌아보며 지금의 우리를 일깨워 온 할머니, 어머니들이 물려주신 위대한 유산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2001년도에 출범한 여성부는 참된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인력개발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평등문화를 확산해 나가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남녀평등의식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사회 각 분야에 있어 여성의 진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이 남성과 함께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역사발전의 한 축이라는 인식은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여성의 업적을 재조명한 여성사전시관을 개관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0여년간의 여성들의 발자취를 담은 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균형잡힌 시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주변에 머물러 있던 여성의 삶과 업적이 본래의 자리를 되찾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성사전시관은 늘 열려있는 공간으로서 언제나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성의 역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아카이브를 운영하며, 다양한 복합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여성과 남성,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교류와 대화의 광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여성사전시관을 더욱 풍성하게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부 장관

지 은희

여성사전시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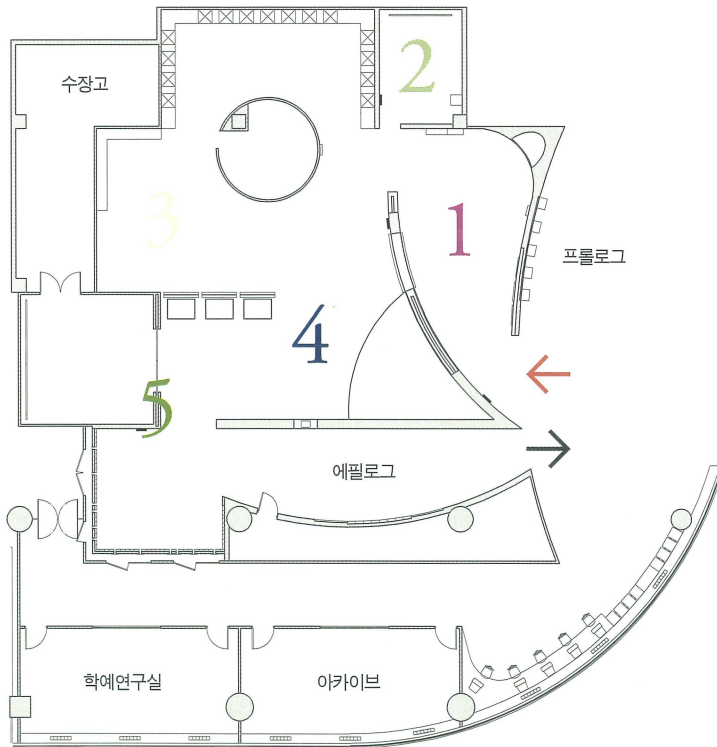
여성부가 설립한 여성사전시관은 국내 최초로 여성의 역사를 다루는 전문 전시관이며 문화공간입니다.

여성사전시관은 여성들의 발자취를 담은 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균형잡힌 시각으로 재 해석함으로써, 주변에 머물러 있던 여성사의 제자리를 찾아주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전시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성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남녀평등의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여성사전시관의 상설전인 [위대한 유산 : 할머니, 우리의 딸들을 깨우대]는 근대 이후 부터 현대까지 약 100여년간 변화하고 발전해 온 여성의 역사를 5부로 나누어 새로운 전시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설전과 더불어 향후 계속되는 기획전, 대중들과 함께 하는 복합문화교육 프로그램, 여성의 업적을 수집·보존·연구하는 아카이브 등을 통해 여성사전시관은 교육의 장, 대화의 장, 문화의 장으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프롤로그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본 선사시대 이후 근대 이전까지의 역사를 연표로 구성한다. 조각보 형태로 구성된 연표는 전근대와 근대를 잇는 역할을 한다.

	BC100	AD1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정치활동	BC2333 환종과 용녀가 혼인해 낳은 아들 단군이 나라를 세움	BC37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는데 돌본부여의 공주 소서노가 큰 역할을 함 BC18 소서노가 아들 온조, 비류와 함께 남하해 백제 건국에 역할을 함 BC6 소서노 사망	53 고구려 태조왕이 7세로 즉위하자 모후가 섭정함	197 고구려 신상왕이 황수(우왕후)를 아내로 맞이함					540 진흥왕모 섭정	632 국인(國人)이 선덕여왕을 추대해 즉위케 하고 성조왕(聖祖)을 받들림 634 분황사 창건 645 왕릉시(王陵寺) 건립 647 진덕여왕 즉위 650 당에 태평송 바침 660 백제가 망하자 3천궁녀가 자결(自決)	765 혜공왕모 섭정		887 진성여왕 즉위	915 궁에서 강제 죽임당함 916 신혜왕후 유씨 건국에 기여 921 정화왕후씨 아들 태조 왕건 탄생 956 대륙왕후 노비인검법 건언	1094 신증미 사숙태후 섭정		1298 조비 무고사건	1303 충신왕비 개가책동 1382 왕대비(공민왕정비) 섭정	1469 세조비 정희왕후 섭정	1545 문종비 문정왕후 섭정 1587 명종비 인순왕후 섭정	1680 1차 예송(자의대) 상복 논란 1674 2차 예송(자의대) 상복 논란 1689 인현왕후 폐비 1690 최빈장씨 왕비됨 1694 인현왕후 복위	1701 정희빈 사사	1900 영조비 정순왕후 섭정 1834 순조비 순원왕후 섭정(환궁) 1849 순조비 순원왕후 섭정(탈궁) 1863 현종 모 신정왕후 섭정
경제활동	BC6000 여성이 토기 제작 BC9000 배반늘과 방추치로 직조 시작 BC5000 여성이 농경 개시	BC41 왕과 알밤비, 농상장려 32 신라 명주짜기 경연(가배종숙)		283 백제 봉의공녀 진모진 일본파견		54세기 신라는 불나무의 심이 많아 비단과 배를 짜임	576 남묘와 준정을 원화로 삼음	672 당에 고은 배(30, 40승) 바침 681 직조 관련 관청설치				1046 정정연립(田丁連立)에 딸의 지순도 포함			1200년대 순비, 남내군분상속재판 재국대장공주 무역활동	1392 아내 재산은 죽은 뒤 친정으로 돌림	1406 외내 설치 1415 가름으로 교방(교방)의 정치 1423 지방에도 외내 설치 1430 공노비 산전신후유가 1477 왕비(정종의)에 정함 1485 남내군분상속	1517 무덤에서 세금 걷는 것 금지	1663 양민들에서 선발한 디하사 조흔 상행	1795 제주 대상의 김만덕이 재주만을 수출함			
혼인과 가정생활	BC200-494 부여에서 간을 범한 여성과 절부녀를 사형에 처함		166 백제의 도미와 처가 정절을 지키기 위해 고구려로 감				664 부인백제를 중국식으로 개혁		834 골품에 따른 복식 정함 887-896 효녀저은 표창	988 문무(문)이상 관리의 처와 부모에게 바름 990 효자순손의부절부 표창	1108 자녀인(童女) 제정 1145 세 아들 급제시 부모 포상 1149 세 아들이 전공(戰功) 세우면 부모 포상 1152 신행녀 자순금고 1156 형제가 수석하면 부모 포상	1275 일부다처제 제안상소	1308 문무양반 동성불혼 1380 고위관료 부인 재가금지 1391 재혼한 명부 봉작사함 1391 계천녀 남편 과전 받지 못함 1391 삼복제 대명(禮)에 따라 개편했으나 외조부모로 과 처부모와는 예외 1393 세 아들 급제시 부모 포상 1395 효자절부 포상	1404 복녀 외출시 얼굴 가림 1407 가난해 혼인못한 사족녀는 관에서 비용대줌 1415 외정복제 정함 1417 양부 봉작식 정함 1431 양반부녀 대면(對面) 제한 1436 삼가녀 자녀안에 기록 1472 사족부녀 산간늘이금지 1477 부녀재혼금지	1511 양반부녀 관공금지 1512 신행녀와 간부 교수형에 처함 1528 사족녀가 재혼하면 가장에게 죄를 들음	1655 효자열녀 표창	1756 양반부녀의 가발을 금지하고 흑두리 쓰게함	1812 효자열녀 표창					
법제								673 김유신처 삼중지도도를 말함	8세기 발해 공주묘지에서 유교적 교양에 대한 내용이 보임				12세기 최부배 처 열경애가 문자들 많이 알고 대의에 밝았다 함					1434 신강행실도 간행 1475 소혜왕후 내훈 저술 1481 신강행실도 한글 번역	1514 속신강행실도 간행 1517 소혜왕후(여계 여적(女賊女賊) 등을 언문으로 간행 1532 여흥(女訓)간행 1551 신시인당 사망 1589 하단설현 사망	1617 동국신속삼강행실도 발간 17세기 신시인당 사망 1796 임윤지당의 윤지당유고 간행 1797 오룡행실도 간행 1800 이시주당 태고시기 지음 18세기 삼정전, 송향전 등 여성 주인공 소설 유형	1736 여사서 언해본 간행 1775 이덕무 시소절 지음 1780 권유한당 유한당언행실록 지음 1786 예경궁홍씨 한중록 지음 1796 임윤지당의 윤지당유고 간행 1797 오룡행실도 간행 1800 이시주당 태고시기 지음 18세기 삼정전, 송향전 등 여성 주인공 소설 유형	1909 이빙(하)각 규합총서 지음 서영수각 사망(영수합고) 1832 정일당 강씨 사망(정일당유고)	
전쟁과 여성		AD1세기 동옥저, 고구려의 속국이 되어 미녀를 바침 32 낙랑공주 사망		3세기 석우로 처가 왜국사신을 죽여 남편 완수 갚음		6세기 평강공주 남편 은달(7-890)을 장군으로 만들었는데 아내가 아비 대신 군막에 나가 가솔과의 약속을 지킴	792 미녀 김정란을 당에 바침				1232 왕의 공녀(정발)에 반대 1257 원고군 침입 때 홍수(胡壽)의 처 유씨 정발지킴 1270 삼별초 반란 때 현문학(玄文學) 처 정발지킴 1274 결혼도감 설치해 공녀 선발 1274 세자가 원 공주의 결혼		1274-1308(충렬왕대) 홍규 딸 공녀를 면허하려 하다 발각됨 1335 이씨의 동녀 정발금지시 기씨녀 원 순제의 제1황후가 됨 1379 김홍도감 설치해 공녀 선발 1274 세자가 원 공주의 결혼	1408 진현색(進獻色)을 설치해 명나라에 바침. 처녀를 각 도에서 선발	1593 논개, 적장과 함께 순국	1609 임진왜란 후 충신 효자, 열녀를 징표 1638 신봉(神鳳)공주 정유외아들 신미의 처(환향녀) 이혼 논란 1649 변란시 사족부녀 신행녀의 가량이 재혼 할려면 허락함							
문화	BC7000 지모신상 만들어 다산과 풍요기원	BC24 왕의 어머니 유화가 죽자 신묘(神廟) 만들	6 신라 남해왕 능이 이로가 시조묘제사주권		263 고구려 승려 이도(伊都)가 어머니 고도성(高道寧)의 예언에 따라 신라에 가서 불법을 전함	576 진흥왕비 여승림 577 백제왕이 일본 사신에게 불경과 율사, 아승, 조사공(造寺工) 등을 보냄 588 일본 최초의 여성 선신(禪僧) 등이 백제 유학	7세기말 김유신처 지순부인, 남편 사후 비구니 됨	754 경덕왕 전 왕비 심모부인(심모夫人, 사향부인)이 황룡사 중 만드는 데 시주		10세기 비조의 비 신혜왕후 유씨가 집을 뒤서해 보편사를 짓게하고 전민(田田)을 시주함 10세기 태조를 모신 김행파의 두 딸 승려 됨	1017 부녀가 승려되는 것 금지	1202 충국서 보수 때 노란의 처 시주	1339 부녀의 향도회(香徒會) 금지 1391 부녀자가 절에 가는 것 금지	1404 부녀상사 및 부모추회(追會)를 모두 금지함 1413 처녀로 여성이 된 자 한 속케 함 1431 부녀자가 절에 가는 것과 승사(僧尼)를 금함. 양반부녀들의 무당집 원래 금지 1433 서울의 무녀를 성문 밖으로 추방 1473 양반부녀가 승려되는 것 일단 1491 양반부녀나 혼인하지 않은 처가 승려되면 가정을 국문함	1517 무녀를 활인서(活人書)의료(기)전에 속하지 않도록 함 1551 중종비 문정왕후 불교부흥		1866 고종과 명성왕후 혼인						

1부 : 여성, 깨어나다

근대 이후 여성들은 이전과는 다른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이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했고, 이에 잇따라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사립 여학교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학교들은 여성 또한 국가의 성원으로 교육받아야 함을 주장하여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혁신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1960년대 이후 여성을 위한 교육제도는 어느 정도 정책상의 평등을 이루어 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중등학교에서 실업·가정 과목이 통합되는 등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에 따라 여성교육이 추구하는 내용, 교육받은 여성이 꿈꾸는 미래도 달라지게 되었다.





| 여성들의 책 |

여성교육에 사용되었던 실제 책을 전시한다.
복사본도 배치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읽어볼 수 있도록 했다.



| 여성들의 배움터 |

조선 말기 선교사 스크랜턴이 설립한 이화학당의 1915년 경의 교실을 디오라마(실경을 모형으로 재현한 교육용 자료)로 재현했다.

| 스쿨걸 아바타 |

연대별, 학교별로 다양한 여학생들의 교복, 체육복, 머리모양 등을 조합하여 관람객들이 아바타를 만드는 인터랙티브 프로그램.

1880년대 교복부터 현대의 교복까지, 다양한 교복을 조합하여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어 볼 수 있다.



2부 : 여성, 일어서다

교육을 통해 여성도 남성과 평등한 사람이라는 자각을 하게 된 여성들은 행동하기 시작했다. 나라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분연히 일어섰으며, 여성 자신들의 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여성들은 이제 불평등한 제도와 편견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희생되었던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위한 투쟁이 있었으며, 민주화의 열망에 발맞추어 여성인권운동 또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여성단체와 협력한 정부의 법제도 개선 움직임도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여성들은 아직도 보다 평등한 가운데 남녀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I 우리들의 일기 : 한국여성운동 100년사 I

불합리한 사회와 환경에 대응했던 여성운동의 태동과 성장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여준다.

1. 개화기 - 일제시대

샘골마을에서 농촌계몽운동을 하는 최용신



근우회 창립 모습



2. 해방이후 1960년대까지

동란 중 서울 YWCA의 우유급식 모습



전국 여성대회 :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의의 탄생



가족법 개정운동



3. 1970년대

청계피복 어린이 노동자



1970년 경 여공들의 분임토의 모습



4. 1980년대

KBS시청료 거부운동



3·8 여성대회 :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탄생



5. 1990년대 - 현재

생활협동조합의 생활문화운동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일본군 위안부 관련 시위



안티미스코리아 대회



3부 : 여성, 일하다

특별히 '직업' 이라고 이름 붙여지지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여성이 담당해왔던 일들은 수없이 많았다. 가정의 대소사와 육아 그리고 농사일까지, 모든 것이 여성의 손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교육의 확대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여성들이 담당하는 일의 폭은 더욱 넓어지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직업이 생겼으며 남성들만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분야에도 점차 여성들이 진출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여성이 진출할 수 없는 영역이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각 영역에서 큰 업적을 이룬 여성 15명의 일과 삶,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여성들의 직업과 그 일 속에 담긴 애환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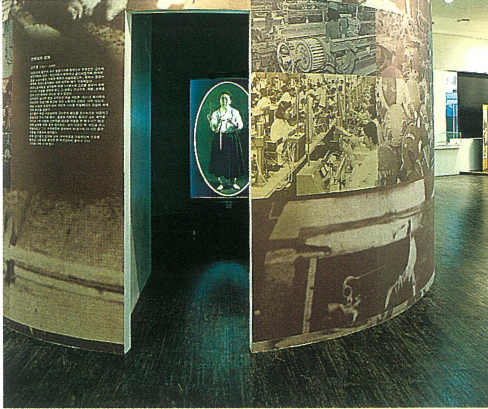
1 선구자 15인 기념비

자선사업가 백선행, 독립운동가 유관순과 김마리아, 의병장 윤희순, 농촌운동가 최용신, 기자 최은희, 육영사업가 김양현당, 교육가 하란사, 페미니즘 작가 강경애, 서양화가 나혜석, 무용가 최승희, 국악인 함동정월, 영화배우 이월화, 비행사 박경원, 의사 박에스더 등 15인의 여성들에 관한 정보를 각각 독립된 제단으로 구성한다. 실제 그들이 사용했던 물건을 통해 그들의 일생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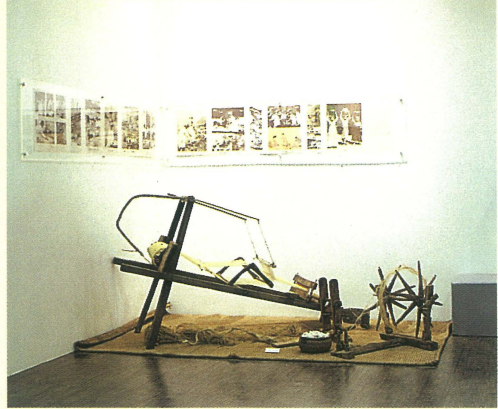
| 선배와의 대화 |

여성에 대한 인식도 낮았고 시대적으로도 어려웠던 시절, 온갖 편견과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비교한다. 작고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가 입체 영상으로 재현된 여성 선각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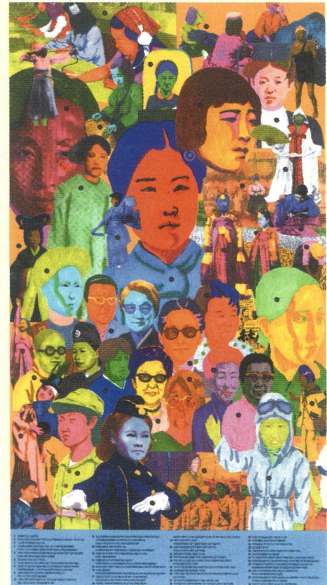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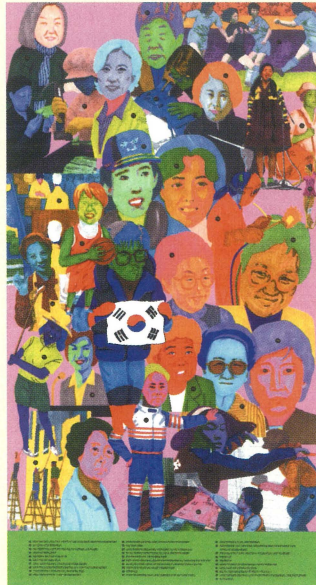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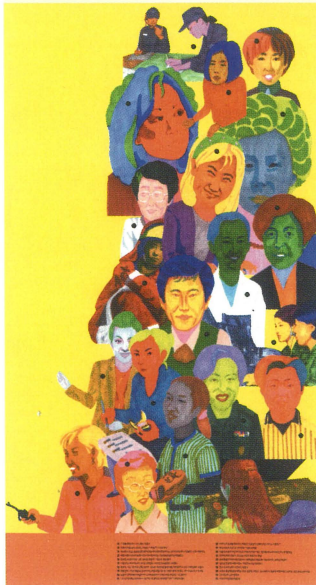
| 우리들의 일노래 |

여성들이 일하면서 불렀던 노래를 들어본다. 전통사회의 여성들은 노래를 통해 생활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했다. 지역적으로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이런 노래들에는, 일에 대한 세세한 묘사들이 나타나 있고 여성들이 느끼는 애환도 꾸밈없이 잘 드러나 있다.



| 일하는 여성들 |

근대부터 현대까지 여성 직업의 변화를 살펴본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직업과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여성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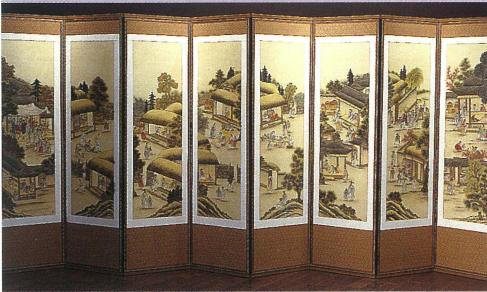
4부 : 여성, 달라지다

개항 이후 서구문화가 유입되면서 여성들의 생활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의복이나 음식, 가옥 구조 등에서 볼 수 있는 일상생활의 변화는 관혼상제 같은 의례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의식절차의 간소화를 가져왔다. 서구문화의 유입과 근대화는 출산 및 육아, 그리고 가족제도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전통적인 대가족제를 해체시키고 핵가족화를 초래하였다. 근대 이후 여성들의 의복 변화를 통해 시대에 따른 여성지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여성 역할에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던 음식문화와 주거문화의 변화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 평생도 |

근대 이전을 살았던 여성의 일상을 8폭 병풍에 담아 보여준다.
송규태, <평생도>, 한지에 수묵담채



| 인형옷 입히기 |

관람객들이 시대의 변천에 따른 의상, 구두, 모자, 가발 등을 인형에 직접 입혀봄으로써 그 변화과정을 알아볼 수 있다. 자식으로 만든 여러 아이템들을 바꿔가며 입혀보는 인터랙티브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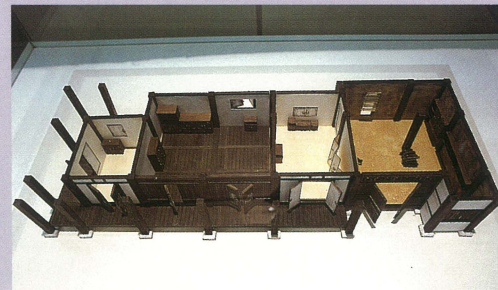
| 음식문화 변천사 |

밥과 국, 몇 가지 반찬으로 구성되어 있던 전통적 식단은 개화기 이후 유입된 서구식 음식문화로 인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음식문화에 일어난 변화를 식품 CF를 통해 알아본다.



| 집과 여성 |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주택의 변화를 미니어처와 도면을 통해 알아본다. 대가족이 기본이었던 과거의 전통가옥, 핵가족 시대의 아파트, 그리고 최근의 탈가족화된 주거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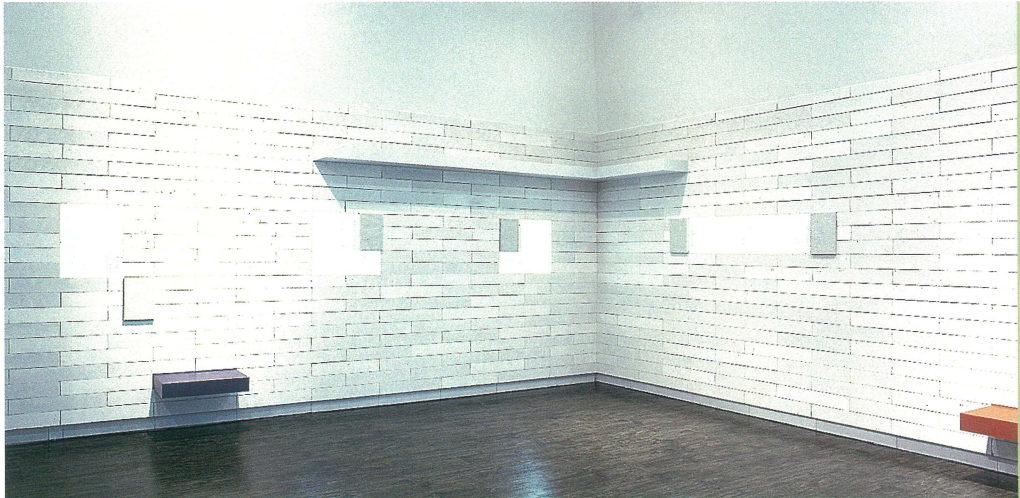
5부 : 여성, 표현하다

우리는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고, 그 중 대다수를 여성의 이미지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미지들이 과연 진정한 여성의 모습을 담고 있을까? 1990년대 이후 왜곡된 여성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이데올로기를 밝히려는 노력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여성의 언어는 흔히 논리적이지 않다거나 말이 많고 더듬거리는 경향이 있다는 식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여성 언어가 매우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 등장했다. 보다 개방적이면서도 복합적인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이 어떤 이미지와 언어로 재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2002 여인극장 : 황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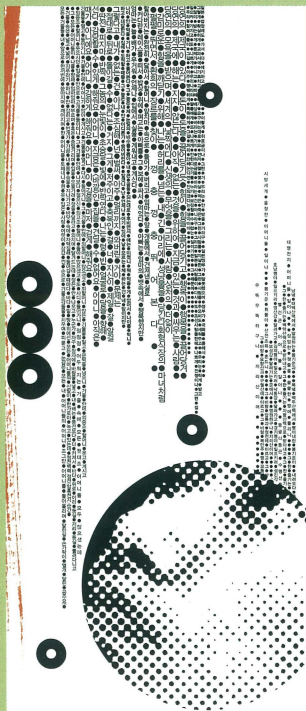
1950년대 <자유부인>에서 2002년 <고양이를 부탁해>에 이르기까지 영화 속에서 여성은 어떻게 표현되었으며, 그간 나타난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다큐멘터리는 1950년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영화들에 등장하는 여성 이미지들을 고찰하고 재조명한다. 시대별로 대표적 스타이미지를 구축했던 여배우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최근 새로운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가고 있는 여배우와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부분에는 새로운 영상매체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청소년 영화와 영화감독을 소개하고 이제 스스로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그들을 통해 밝은 미래를 제시한다.





| 여성의 언어 |

시 · 소설 · 민요 · 노래 · 영화 · 실화 등 예술에 나타난 여성의 언어를 살피고, 여성의 언어가 지니는 해방적 요소와 대안적 여성상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여성 언어의 개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과 해방적 요소를 느낄 수 있게 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은 약 50여 편의 여성 언어를 소리벽을 통해 들려주고, 관객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들을 수 있도록 한다.



| 나의 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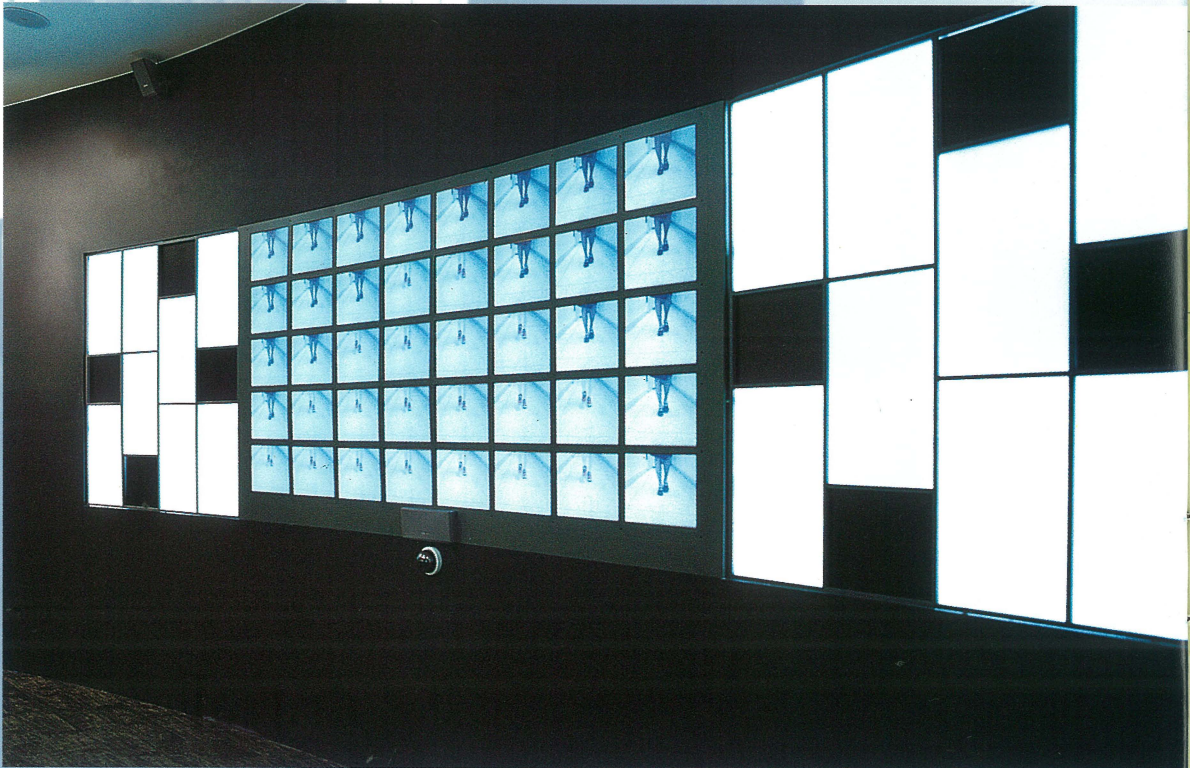
여성의 언어 중 일부를 발췌하여 타이포그래피로 보여준다.

에필로그

전시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으로 미래의 여성 그리고 여성이 추구하는 미래를 제시한다. 모두가 꿈꾸는 비대립적이고 조화로운 세계를 상상해본다.

| 일렉트로닉 퀼트 |

앞선 세대 여성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그 꿈과 희망을 이어가는 뒷 세대들의 밝은 얼굴 속에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
김지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멀티 모니터



| 대형 조각보 |

인류가 추구하는 미래는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조화로운 세상, 여성적인 온화함이 충만한 평화로운 세상일 것이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를 조각보로 표현하였다.

손경숙, <21세기를 향하여>, 국내산 모시에 천연염색과 자수



여성사전시관 소장유물

여성사전시관은 근현대 100여년에 걸친 여성의 삶과 관련하여 약 600종 3,000여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소장품에는 개화기부터 여성의 교육을 위해 쓰였던 교과서류와 사회문화활동과 관련된 서책류 일체를 비롯하여 일상용품, 생활민속품 등이 있다. 대표적인 유물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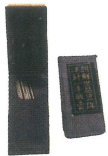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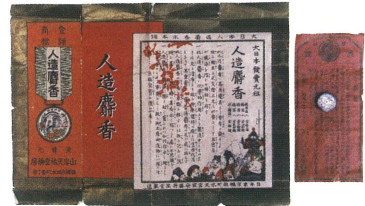
한국 관허 제1호 화장품인 박가분 진본 2점



박가분은 두산그룹 창립자인 박승직 씨의 부인 정정숙 씨가 운영하던 포목집에서 덩으로 끼워주는 상품 이었는데 점차 인기를 끌게 되면서 1920년에 독립상품으로 등록된 관허 국산 제1호 화장품이다. 개당 50전으로 팔리던 박가분은 몇 원씩 하던 일제화장품보다 값이 저렴한데다 사할을 첨가했기 때문에 하루에 1만 갑씩 팔려나가기도 했다. 납파동이 생기면서 일본에서 기술자를 데려와 재생산하기도 하였는데, 여성사전시관에서는 납파동 이전과 이후의 박가분 2종을 소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당시 박가분의 아성을 뒤따른 서가분, 코티분 등도 소장하고 있다.

인조사향

개화기에 유입된 서양문물로 “염료, 설탕, 화장품, 비누, 향수, 인조사향, 담배” 등이 대중에게 널리 보급되었다. 인조무스로 향을 가미한 사향은 박래품의 주요품목 가운데 하나로 질은 향일수록 잘 팔렸다. 일본에서 수입판매한 인조사향은 거드랑이와 같은 부위에 붙었는데 여성사전시관이 소장한 인조사향은 한일합방 이전에 판매된 제품으로 “한국”의 주소가 인쇄되어 있다.



세창양행 바늘쌈 3벌

한국 최초의 독일계 수입상점인 세창양행에서 판매한 바늘쌈 3벌이 있다. 제품포를 거점으로 수입판매를 했던 세창양행에서는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였던 가느다란 바늘도 팔아 인기를 끌었다. 갓 쓴 조선인의 모습이 그려진 특이한 바늘쌈 껍질이 사이즈별로 6, 7, 8호 3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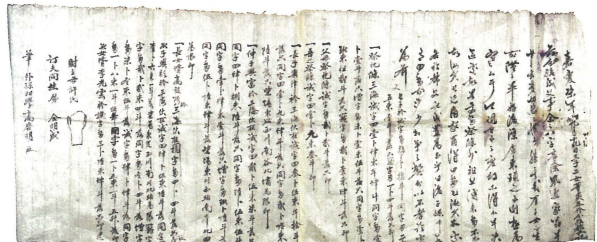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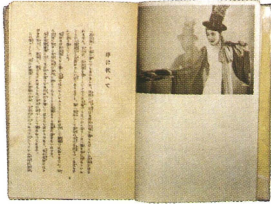
색복(色服) 착용 깃발

일제 강점기 때 총독부에서는 서양복의 보급과 의복 개량을 내세워 우리 민족의 백의 착용 관습을 저해하고자 하였다. “흰옷은 비경제적이다, 유행복이고 미성복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백의 대신 흑이나 회색의 착용을 강요하였다. 색복 깃발은 색복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옷 가게 등에 달았던 것이었다. 일본 헌병들은 시장 등지에서 흰옷 입은 조선인들에게 검은 물총을 쓰고 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색복 착용 선전 구간도 있었다.

수결이 있는 1802년 분재기

1802년 3남 2녀의 가장이 서술한 재산분배기록인데, 일종의 유언이며 증인들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이 분재기는 아들과 딸에 대한 현대인의 편향된 의식에 비해 조상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기록으로, 아들뿐만 아니라 딸들 특히 시집간 딸에게도 재산을 상속했던 당시의 풍속을 보여준다. 1802년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분재기를 통해 두 딸에게도 재산을 분배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재산관리인 겸 증인인 어머니가 주먹 권 모양의 수결을 그려 나타낸 것이 재미있다.





최승희 자서전, 무용공연 입장권, 화장품 광고모델 전단지

일본에서 1936년에 초판 발행한 최승희 자서전이 소장되어 있으며 최승희의 제3회 무용공연 입장권과 화장품·비누의 광고모델로 활약했던 시절의 광고 전단지도 있다. 또한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최승희가 일본 자국내의 인기 있는 연예인, 스포츠인의 한사람으로 선정되어 있는 대형 전단지도 있다.

방화 포스터

<자유부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화 포스터가 있다. 특히 영화 <자유부인>은 정비석의 소설을 1956년에 한형모 감독이 영화화한 것으로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였다. 이 외에 미국문화의 유입과 맞물려 발전했던 영화산업의 면모와 여성의 사회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포스터 전본이 1950년대부터 1980년대의 것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일제시기 명월관 등의 기생 업서/딱지본

총 300여점의 여성 이미지를 담은 업서와 딱지본이 소장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때 총독부는 일본 자국내의 일본인을 내한시키기 위해 기생 관광문화를 홍보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업서와 딱지본이 다수 제작되었다. 이 외에도 여성의 이미지를 담은 다양한 업서사진, 전단지 등이 있다.

* 이 소장유물들은 전시 주제에 따라 교체하여 전시하게 된다.

전시관 프로그램

● 복합문화교육 프로그램

여성사전시관은 전시실과 영상관, 그리고 작은 무대를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문화예술 및 교육 프로그램, 여성사 관련 공모전 등의 이벤트를 마련할 예정이다.

| 문화예술 프로그램 |

- 영상물제작 프로그램 : 다큐멘터리를 제작 · 상영하며 아카이브에 보관하여 자료화한다.
- 공연예술 프로그램 :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영화상영 프로그램 : 한국 영화 중 전시관의 주제와 부합하는 영화를 선정, 전시장 내의 영상관에서 수시로 작품을 교체하여 상영한다.

| 교육 프로그램 |

- 여성사 교육 : 여성의 눈으로 보는 역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 답사 프로그램 : 여성의 삶을 이해하고 여성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과 관련된 유적지를 답사한다.

| 심포지엄 및 초청강연 |

전시(상설전, 기획전)와 관련하여 심포지엄이나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아카이브(자료실)

아카이브에서는 여성사 연구의 바탕이 될 기초자료를 발굴 · 수집하여 보존한다. 또한 열람자들과의 상호소통이 가능한 경로를 마련하여, 향후 여성사전시관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아카이브 공간의 자료 수집은 복합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여성사전시관의 사회 ·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다각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구술사 중심의 여성 관련 자료의 수집
- 여성사 관련 자료의 수집, 공모, DB 구축
- 여성 관련 자료의 정보 네트워크화와 전자도서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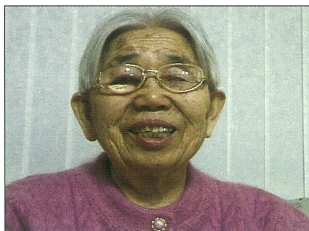
| 구술사 |

개관기념전시와 함께 검색코너를 마련하여 다양하고 생생한 구술사를 들을 수 있다. 전시의 1부에서 5부까지 각 주제에 맞는 여성들을 선정하여 그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여성의 역사를 들어본다.

불광동 시장 할머니 김남옥



독립운동가 백옥순



노동운동가 조화순



관람안내

| 관람시간 | 10:00 - 17:00 (화~일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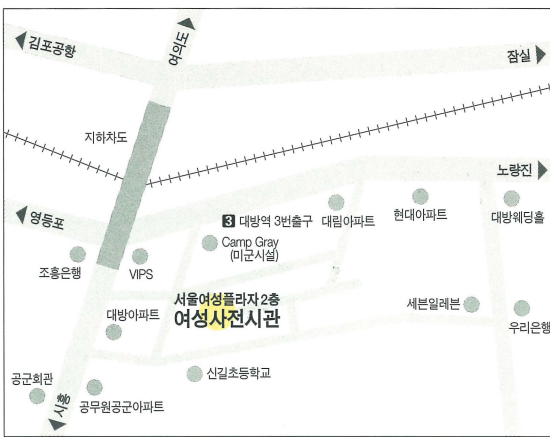
월요일 휴관

* 단체관람시 사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대방역 3번 출구 50m

버스 21, 62, 62-1, 92-2, 94, 98, 101, 111, 121, 128, 140, 212,
212-1, 303번(대방역 하차 50m)

| 약도 |



여성사전시관

156-808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45-1 서울여성플라자 2층
Tel 02) 824-3085~6 / Fax 02) 824-3087

만든 사람들

| 큐레이터 | 오혜주 · 최정주 · 강희정(어시스턴트)

| 자료 | 김경연 · 박은미 · 양정진 · 최지연

| 진행 | 문호경 · 손희경 · 정주하

인트로 동영상 ● 임홍순

메탈 보자기 ● 강애란

컴퓨터 프로그래밍 ● 장동환

| 연구 |

사단법인 여성문화예술기획

이화여자대학교부설 이화사학연구소

계원조형예술대학부설 계원조형예술공학연구소

| 사진자료 협조 |

단체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 계성초등학교 ● 공군사관학교 ● 광주 수피
아여자고등학교 ● 국방부 여군발전지원단 ● 대한간호협회 ● 대한
주택공사 ● 대한YWCA연합회 ● 덕성여자고등학교 ● 도서출판 이
프 ● 독립기념관 ● 동은의학박물관 ● 박금자 산부인과 ● 배화여
자고등학교 ● 부산 자매정신요양원 ● 서울사대부속중학교 ● 소비
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송의여자고등학교 ● 시골로 가는
마지막 기차 <http://www.sigool.com> ● 여성과학기술인회 ● 연세
기록보존소 ● 연세대학교 ● 윤현초등학교 ● 육군사관학교 ● 이화
여자고등학교 ● 정신여자고등학교 ● 제주도 문화관광시설 관리사
업소 ● 중앙여자고등학교 ● 진명여자고등학교 ● 천도교 신인간사
● 커뮤니케이션 월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풀무원 홍보팀 ● 풍
문여자고등학교 ● 한국기정법률상담소 ● 한국보육교사회 ● 한국
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전화연합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한국철도대학 ● 해군사관학교 ● (사)
또하나의문화 ● (사)한국생협연합회 ● (주)대상 ● (주)대한항공
(주)두산식품 BG ● (주)롯데칠성음료 ● (주)삼성전자 경영지원 홍보
실 ● (주)삼양식품 ● (주)오뚜기 ● (주)하이마트 ● (주)CJ 홍보실
● CJ푸드빌 홍보실 ● LG건설 ● LG전자 홍보팀

| 설계 · 시공 | (주)하나인테리어디자인

| 영상 설비 | 매직아이 엔터테인먼트(주)

| 작품 제작 |

프로로그

프로로그 조각보 ● 정소연

1부

스쿨걸 아바타 ● 임주경

여성들의 배움터 ● 최정현

2부

우리들의 일기 <한국여성운동 100년사> ● 신동숙 · 이정명

3부

선배와의 대화 ● 김명자 · 김애영 · 문성희 · 박민나 · 박영숙
이승현 · 이지연 · 정승혜 · 진경

우리들의 일노래 ● 이정란 · 최상일

보따리 방식 ● 서혜영

일하는 여성들 ● 노석미

4부

<평생도> ● 송규태

신여성 양장점 ● 이진경(마네킹 제작)

인형옷 입히기 ● 백미현

음식문화 변천사 ● 김세진

집과 여성 ● 유현정(해가죽 이미지 작업)

윤근주(탈가죽 이미지 작업)

5부

2002 여인극장 <활출경> ● 연출 김소영, 프로듀서 이병원 · 이정아

여성의 언어 ● 김미현 · 김순진 · 김정란 · 김태연 · 신주진

이영미 · 이정란 · 정문순 · 홍인숙

<열 한 번째 손가락 · 나혜석> ● 윤석남

나의 말 ● 장문정

에필로그

일렉트로닉 퀵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 김지현

대형조각보 <21세기를 향하여> ● 손경숙

개인

김지선 ● 류승원 ● 류임랑 ● 민원기 ● 박미현 ● 박상욱 ● 박준
성 ● 안병현 ● 오정호 ● 유현숙 ● 이경희 ● 이규원 ● 이선희 ●
이영희 ● 이지애 ● 이철순 ● 장김현주 ● 정구해 ● 최민경 ● 최
영인 ● 한정민 ● 황재성

| 유물 협조 |

단체

강원대학교박물관 ● 국사편찬위원회 ● 국립음반박물관 ● 나혜석
기념사업회 ● 대한YWCA연합회 ● 독립기념관 ● 동은의학박물관
● 삼성출판박물관 ● 선문대학교 연구 · 정보처 ● 시간여행 ● 연세
대학교 기록보존실 ● 옛기술과 문화 ● 외솔회(나라사랑) ● 정부기
록보존소 ● 정신여자고등학교 김마리아회관 ● 최용신선생 기념사
업회 ● 통일부 ● 화안기구

개인

김백봉 ● 김중대 ● 박미현 ● 박성실 ● 송규태 ● 신탁근 ● 양국
석 ● 오영식 ● 이달순 ● 이동춘 ● 이상경 ● 임진순 ● 정병호 ●
정수웅 ● 조희문 ● 진학호 ● 최공호 ● 최인려

| 도움주신 분들 |

이남희 ● 최인려

| 팸플릿 |

디자인 ● 고가현

사진 ● 양성윤

1부~5부

구술사 ● 강미란 · 김진열 · 박정숙 · 윤은정 · 이경희 · 이순옥
이혜란

| 여성사전시관 |

156-808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45-1 서울여성플라자 2층 Tel 02) 824-3085~6 / Fax 02) 824-3087